제네시스 G80

‘코로나 보복심리’ 비싼 차 잘 팔렸다

메르세데스-벤츠 E300 4매틱

지난해 중대형·대형급 58만6748대 판매…전년대비 32.7% 급증
중형 이하는 9.1% 줄어…수입차 평균 금액도 전년비 1.8% 올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비롯해 여가와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고가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보복심리’가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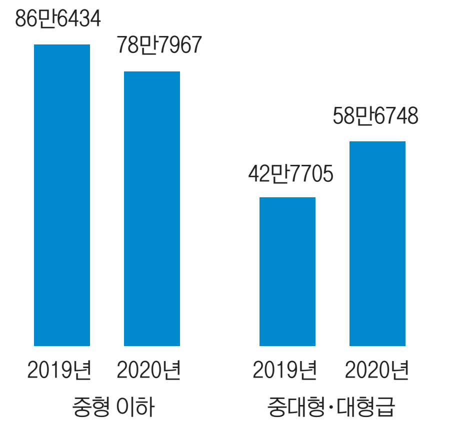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소형차와 중형차 판매는 줄어든 대신, 고가의 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가 크게 늘었고, 수입차 역시 전년에 비해 비싼 가격의 차량의 더 많이 팔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승용차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137만4715대로, 역대 내수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차급별로 보면 중형 이하 차급 판매는 78만7967대로, 전년(86만6434대) 대비 9.1% 감소했다. 2015년(101만5651대)과 비교하면 22.4%나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대형·대형급 판매는 58만6748대로, 2019년(42만7705대) 대비 32.7% 급증했다.

일반 세단 모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SUV 모델(전 차급)은 작년 총 61만5983대가 팔리며 15.3% 성장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신형 G80을 비롯해 브랜드 첫 SUV 모델인 GV80 등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지난 한 해 총 10만8384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5만6801대) 대비 무려 90.8% 증가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고급차 구매가 늘어난 것과 같이 수입차 시장 역시 고가의 차량이 많이 팔리는 등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7만4859대였다.

수입차 차종별 금액을 고려한 추정 매출액은 20조2686억원으로 전년(17조7310억원) 대비 14.3% 증가했다. 판매 증가치보다 매출 증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더 비싼 차량이 많이 팔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수입차 브랜드의 작년 대당 평균금액은 7374만원으로 전년(7244만원) 대비 1.8%(130만원) 상승했다.

특히 기존 하위 브랜드 구매자들이 눈높이를 높여 상위 브랜드로 진입하는 경향도 엿보였다.

입문형 수입차 브랜드인 폭스바겐의 경우 작년 판매는 1만7615대로 전년 대비 107.0% 증가했다. 매출 추정치는 90.7% 증가한 7989억원으로 브랜드 내 저가 차량의 판매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던 폭스바겐이 작년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자 국산차 구매를 고려하던 고객이 눈높이를 높여 수입차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며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과 편의성 등이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보유 차량보다 차급을 상향해서 구매하거나 평소에 구매를 고려하지 않았던 수입차까지 구매 리스트에 포함한 소비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기아 봉고 III EV 특장차 판매

기아는 봉고 III EV 특장차 판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봉고 III EV 모델은 ▲내장탑차(저상형·표준형·플러스형) ▲파워게이트 ▲윙바디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135㎾ 모터와 58.8㎾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 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를 주행할 수 있다. 저상형 내장탑차는 지하 주차장(높이 2.3m 기준) 출입이 가능하며 표준형·플러스형 내장탑차는 각각 1580㎜, 1810㎜의 화물실 높이를 갖춰 많은 양의 화물 적재가 용이하다.

화물실 측면을 날개처럼 열 수 있는 윙바디 모델은 측면 도어 개방 시 화물실의 개방감이 우수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 편리하다. 파워게이트는 모터를 이용해 화물칸 끝 단에 위치한 게이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시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고,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을 기본 적용했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기본 탑재됐으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을 전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3년 연속 판매왕을 달성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정승기 팀장.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객과 소통 되레 늘었다”
신성자동차 정승기 팀장 3년 연속 ‘벤츠 판매왕’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정승기 팀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판매왕’에 이름을 올리면서 3년 연속 판매왕을 달성했다.

정 팀장은 “작년은 모두가 어려운 한해였는데 고객들이 도와준 덕분에 판매왕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한 해는 대면접촉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영업활동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 팀장은 오히려 고객 관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과 모임 등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객과 연락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더 늘렸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 고생하는 시기에 최소한 우리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감사하게도 고객들의 재구매, 소개 등으로 되려 응원을 받게 됐다”고 전해다.

정 팀장은 3년 연속 판매왕을 달성한 꾸준한 판매 비결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진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고객과의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성,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방역키트와 구호물품지원, 10억원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 팀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세일즈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묵묵히 내 역할을 하겠다. 새해에도 최고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서서히 베일 벗는 ‘아이오닉 5’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내부 공개…23일 온라인 첫 선

아이오닉 5 내부에서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뒤로 이동하고, 1열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한 모습.

현대자동차가 15일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의 내부 티저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적용한 첫 번째 차량으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탑승자 모두를 위한 ‘거주 공간’(Living Space)이라는 테마가 더해져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내부 디자인을 갖췄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내연 기관차의 구조적 한계였던 실내 터널부를 없앤 플랫 플로어(Flat Floor)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콘솔인 ‘유니버셜 아일랜드’(Universal Island) ▲슬림해진 콕핏(운전석의 대시보드 부품 모듈)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배치한 전자식 변속 레버(SBW)를 적용해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리받침(레그서포트)이 포함된 1열 운전석·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여줘 안락한 주행을 비롯해 주·정차시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이오닉 5 내부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친환경 공법을 대거 적용해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가죽 시트 일부와 도어 팔걸이(암레스트)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하고 가공해 만든 직물을, 도어와 대쉬보드, 천정과 바닥 부분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다.

또 시트 가죽 염색 공정에는 아마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이 적용됐으며, 스티어링 휠, 스위치 등 손이 닿는 부분은 유채꽃,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바이오 페인트가 사용됐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